

##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전교인 수련회 안내  
일시: 8월 18(토)~19(주일) 장소: 포코노 수양관 회비: \$40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준비 모임 안내  
점심 식사 후에 전교인 수련회 준비 모임을 1층 친교실에서 갖습니다.  
준비위원: 최홍만, 배한우, 허도행, 류홍덕, 송섭, 노미숙, 정경학, 김은혜
- 성찬식 및 세례식 안내  
7월 29일(주일)에는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플러싱 구역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는 우드사이드 구역입니다.

### 7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7/15	섭	표하나	플러싱	한순자
7/22	최홍만	강병근	우드사이드	한순자

###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방학 중)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 주일설교요약

제목 :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 : 열왕기상 13장 11~25절

- 기도제목 : 1.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속지 않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소서!  
3.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귀가 앓다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거나 상대방에게 속임을 잘 당한다'는 의미가 귀가 앓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귀가 꼭 막혀도 귀가 너무 두꺼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귀가 너무 앓아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드정말을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가 앓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벨에 살았던 높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게 되어 목숨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열왕기서에는 거의 50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열왕기서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말씀의 디렉션대로 움직이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빠져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게 되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나입니다.** 성경은 속였던 높은 선지자보다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보다 속임으로 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파괴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지 못하고 주변 사람의 말에 그만 쉽게 속아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속이는 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속이는 자를 보다는 그것에 속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 새기며, 그 말씀 속에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에 빠져 그만 무너져버린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가 길 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었던 나귀는 그 옆에 그대로 서 있고, 사자는 자신이 죽인 사람도 나귀도 일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죽여 놓고 먹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 있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품 나게 설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유혹에 넘어 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길 가에 버려진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에 선행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에게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할 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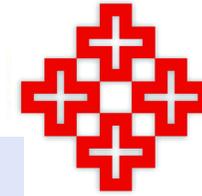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7월 15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후서 강해) 기도: 표하나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29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4번(시편 100편)	
찬 송 Hymn	362장	
기 도 Prayer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누가복음 10장 25~37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요일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399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